

장애인들 “시외 저상버스 도입하라” 소송

뇌병변 장애인 5명, 국토부·광주시·금호고속 상대 제기 휠체어 승강기 설치 등 광주 첫 ‘시외 이동권 보장’ 소송

광주에 사는 김영애(여·55·뇌병변 장애 1급)씨에게는 소박한 소원이 하나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사찰에 안치된 어머니의 납골당에 홀로 다녀오는 것이다. 광주발→고양행 시외버스 노선이 하루평균 11대 운행되고 있지만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타야 하는 그에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휠체어로 오르내릴 수 있는 시외버스가 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제 두 다리나 다름없는 휠체어를 타고 홀로 어머니를 뵈러 자유롭게 오가는 게 생전 소원”이라고 울먹였다.

김씨와 같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43만 명으로 추산된다.

단 1m의 거리라도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된 광주시 거주 교통약자들의 소박한 꿈

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광주시에 사는 뇌병변 장애인 5명이 28일 교통약자들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광주시·금호고속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에서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추석을 시작으로 해마다 시외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간 이동권 보장을 받기 위한 이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계속됐는데도, 이를 외면해온 정부·광주시 등의 미온적인 행태가 이들을 법정으로 불러들인 셈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도입 내용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금호고속에는 교통약자들이 시외버스 이용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차 편의는 물론 저상버스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교통약자 비율은 전체 인구(5097만6519명)의 26.8%를 차지하고 있는데, 광주지역에서 운행되는 저상버스는 시내버스 뿐이다. 지난해 기준 시내버스 998대 중 18.6%인 186대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외 구간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9500대가 넘는 광역버스·고속버스가 장거리 운행을 하고 있지만 휠체어 이용자는 버스를 타고 시외를 오가는 게 불가능한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외이동도 엄연한 권리이자 인권이며 정부 등이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소송 결과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온다면 작은 바람이다.

장애인 김은숙(여·37)씨 등 2명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바다 여행을, 박영석(47)씨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을, 배영준(19)군은 경남 통영 섬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다.

시외이동권이 보장된 이에게 자극이 평범한 현실이었지만 이들에게 소원이 되는 셈이다.

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이소아(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는 “시외이동권 보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정부·지자체·운수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익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 공동대표는 “시외 이동권 보장 소송에서 버스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고 국토부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 인권위 결정도 있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학생 복지예산 빼들려 피자 사 먹은 교사

광주시교육청 진상조사 나서

학교 생활이 힘든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복지예산을 담임 교사가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광주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 A(여)씨가 ‘희망교실’ 복지예산 50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희망교실은 장희국 광주시교육감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으로 교사가 멘토로 나서 교육 소외 학생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을 위해 한 학급당 50만원을 지원한다.

A교사는 지난 3월 학기 초 희망교실 사업계획서에서 토레 상담, 사제동행 외식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A교사는 이 프로그램에 사업

비 50만원 중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비는 남편 안경 구입과 자신의 집에서 먹을 피자를 구입하는 등 모두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특히 A교사는 희망교실 프로그램을 토요일에 하겠다고 신청해 추가근무수당 18만원도 받아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측의 감사요구를 받은 뒤 A교사로부터 5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A교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50만원에 대한 징계부과금 2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1·2차에 걸쳐 683개 희망교실을 선정했으며 총 32억2780만원을 지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현재 판결 2제

사시 복원 현소 또 기각

“평등권 등 침해 안한다”

지난달 7일 3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복원해달라는 헌법소원이 또다시 기각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에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의 위헌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도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현재는 최근 사법시험 준비생 A씨 등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시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사시폐지가 경제적이지 않은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한다. 현재는 지난해 9월 합헌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별도의 결정 사유를 판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학생부 제출 의무화한

교대 수시 모집요강 위한

입시 전형 과정에서 학생부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서울교육대학교 등 11개 교대의 2017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모씨 등 7명이 2017 수시모집 입시요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교육대 등 11개 교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생부를 제출하도록 한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교육대 등 11개 교대는 지난해 8월 학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입학에 제한하는 내용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 용인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씨 등은 지난해 8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저무는 2017년...슬픔의 세월 묻고 새 희망 떠오르길



28일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추모객들의 발길에 끊긴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거처돼 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에 대한 세월호 수색 작업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세월호·제천 참사 다시는 없어야”

세월호 유족 31일 목포신항서 진상규명 다짐 해넘이 행사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계속 재앙이 되풀이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동생과 조카를 잃은 권오복(61)씨는 28일 “직원들이 먼저 탈출하고 부실대응으로 화재를 키운 제천 화재를 보면서 세월호 참사가 재현된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스

포츠센터 화재는 여러모로 세월호 참사와 비슷했다”며 “내년부터는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11월 고민 끝에 목포신항을 떠났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떠났지만 포기한 것

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들은 “몸은 서울에 있지만 아직도 마음은 목포신항에 있다. 내년엔 다시 선체 수색이 재개만 된다면 동생과 조카, 가족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세월호가 3년 만에 물으로 울

라움에 따라 본격 수색이 진행됐지만 5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4·16 가족협의회, 4·16연대 등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가 거처된 목포신항에서 ‘2017 목포신항 세월호 앞 진상규명 다짐 해넘이 행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함께 미수습자 이름 부르기, 세월호 한바퀴 돌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늦잠 잔 아들과 친구 때렸다가...60대 아버지 경찰서행



○...60대 아버지가 중학교에 다니는 늦둥이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늦잠을 잔 것에 화가나 손찌검을 했다가 경찰서행.

○...2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62)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 광주시 북구 운암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15)과

친구 장모(15)군을 혼내려면서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것.

○...김씨는 아들이 맞은 데 격분한 장군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는데, 경찰에서 “평소에 아들이 학교에도 자주 가지 않고 속을 썩이자 순간 화가났다”고 진술.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NPL과 특수물건만이 정답이다!!

부동산 투자 !!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선규 H.P 010-3605-5000